



3 3농정책과 친환경농업



3농정책과 친환경농업

전남의 미래에 영감을 주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축산물 생산국가로 식량자급률은 무려 300%에 달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역시 농산물 강국에 속한다. 이들 나라가 수요를 초과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이유는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생산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들 나라는 식량을 자급할 수 없다면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며, 주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먹을거리의 7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몇몇 나라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FTA와 DDA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더욱 가파른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농도인 전남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됐다. 농도 전남이 무너지면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식량주권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전라남도가 '3농정책'을 도정의 중점과제로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3농정책이란 농업, 농촌, 농업인이 겪는 고민을 같은 테이블에 놓고 봐야 한다는 개념이다. 셋을 따로 접근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전남도가 펼쳐온 3농정책의 핵심은 친환경이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모두 친환경을 지향한다. 그 같은 친환경의 바탕 위에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두레의 정신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농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고에 걸맞는 소득창출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시장개척을 지원

한다는 것이다.

3농정책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이란 가치를 내건 이유는 농업이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도 전담을 살릴 비책으로써 현실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04년 당시, 국가적으로 IMF 경제위기가 거의 치유되고 생활 수준과 소득이 높아지자 국민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거기에 ‘웰빙’이라는 사회적 트렌드까지 더해졌다. 전남도는 이때 ‘3농정책’의 가치를 들었다. 농업인 사이에서도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전남은 그동안 정부 농업정책에 실망과 좌절감만 남은 전형적인 ‘영세·낙후 농촌’이었다. 그래서인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매우 어려웠다. 공직자들조차도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뜻을 함께 해주지 않았다. 모두가 친환경농업은 어렵고 유통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했다. 그러나 박준영 지사는 어렵다고 할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며 힘있게 밀고 나갔다.

친환경이 살 길이다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할 당시 전남은 친환경농업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4,057ha에 불과했다. 2004년 ‘제1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천에 들어갔다. 그 계획의 뼈대는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에 착수했다. 결과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우려와는 달리 ‘대성공’이었다. 전남도 공무원 관계자들도 기쁘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이제는 확신을 갖고 추진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도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첫 번째 요인은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이다.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한다면 수요는 늘기 마련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농약 같은 발암물질이 든 식품섭취시 어린이는 어른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은 발암가능성이 농민이 아닌 사람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개구리와 지렁이가 없어져

토양이 척박해지고 벌, 나비가 줄어들어 나주 과수 농가들이 사람 손으로 수분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장기간의 화학비료 사용과 농약 살포 때문이었다.

농도 전남의 친환경 전환 정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1차계획이 끝난 마지막 해인 2009년 통계를 살펴보자. 농가수는 11만385호로 27.2배, 친환경 인증면적은 10만4,682ha로 25.8배, 생산량은 127만5,034톤으로 22.8배 늘었다. 인증면적은 당초 목표인 9만8,000ha를 초과 달성했다.

친환경농업 관련업체는 3.7배(146개소), 고용인력은 3.0배(649명)로 늘었고 종합하면 경제적 가치 3조9,000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8,000명이다.

전라남도는 1차계획의 성공에 힘입어 2010년 2차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4년까지 농약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유기농·무농약의 비율을 각각 15%,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1조6,62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되살아난 뚝방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친환경 뚝방 조성, 동물복지형 축산, 곤충산업 육성, 나무은행, 난대수목원 개발, 비교우위 특산자원 산업화, 해안가 지역 조생종벼 확대 재배, 다목적 사방댐 조성 등이 있다.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시책은 축종별 유통회사 설립, 수도권 단체·학교 급식 공급 확대, 전남 친환경 식품유통센터 구축, 농부장터 운영, 마을 반찬 사업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행복마을 조성, 전원마을, 뉴 타운, 체험마을, 노인 공동생활시설, 기숙형 고교 친환경 기숙사 건립 같은 농촌 복지 향상 사업도 빼 놓을 수 없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들판에는 뚝방이 많았다. 농수로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뚝방은 농사의 생명수를 저장하는 간이 저수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농수로의 도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편리하기는 했으나 생물이 한번 빠지면 물살에 휩쓸려 다시 나올 수가 없었다. 생태계에는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전남도는 농지정리를 하며 사라진 뚝방을 복원하기로 했다. 그간 기능에만 치우쳐 뚝방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 따른 성찰의 결과였다.

뚝방 복원은 전남 들판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생물다양성과 농업용수 수질개선 효과 등을 조사했는데 뚝방 조성 전보다 수생

식물 개체수 증가는 물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등이 월등히 높아졌다. 한 예로 강진 옴천에 만들어진 둠벙에서는 수생생물 종류와 개체수가 대폭 늘어났다. 1급수에서만 살아가는 날도래, 실잠자리, 연못하루살이, 민물새우, 소금쟁이, 피라미들이 많이 발견됐다. 또 담양 수북의 둠벙에선 산소요구량이 3.4mg/L에서 1.5mg/L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둠벙은 농업용수 제공은 물론 생태환경 복원효과가 뛰어났다. 둠벙은 1960~70년대 시절 시골에서 자란 어른들에겐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전라남도는 둠벙을 2010년부터 4년간 매년 100개소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둠벙에 대한 인기가 좋아 당초계획을 500개로 증가하고 2014년 현재 1,060개소를 만들었다. 특히 저수시설이 부족한 신안군은 둠벙을 214개소 조성하여 논농사, 밭농사에 큰 효과를 보았다.

전라남도가 만든 둠벙은 1.5m~2m 깊이에 총 면적 16㎡~99㎡ 규모를 기준으로 했다. 또 석축 쌓기 같은 인공적인 형태를 배제하고 지형에 맞게 자연스러움을 살리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둠벙 조성에 1개소당 2~300만원을 보조했다. 많지 않은 조성비였지만 투자대비 수익성은 계량하기 힘들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에서 온 한 농민은 담양의 둠벙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같은 생태학적이고 실용적인 값싼 저수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전남에선 동물도 '복지혜택'을 누린다

2010년 겨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축산 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다. 우유, 치즈 등을 만드는 식품회사도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식당들은 소비자들 외면으로 파리를 날리는 지경이 됐다. 하지만 전남 축산농가는 구제역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유기축산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가축이 전염병에 약한 이유는 좁은 사육장소에 항생제를 다량 사용해서 기르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장식 축산의 비극이다. 전남도 유기축산을 시도하기 전인 2005년 대폭설 때 큰 피해를 입었다. 비닐하우스에

밀집된 동물들이 축사가 무너지면서 대량으로 죽었다. 이를 계기로 전남도는 유기축산을 시행하게 됐다. 전국 최초로 18개 사업에 7,181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전남도내 1,300여 개 축산농가는 넓은 기숙운동장, 축사시설의 현대화, 유기농 사료 공급 같은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HACCP지정을 받았다.

녹색(유기농) 축산물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는 동물 복지에도 그 당위성을 둘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소고기는 미국 자체 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고기라면 달라진다. 왜냐면 한국인이 마블링을 좋아하다보니 미국 축산농가에선 한국에 수출하는 소에는 마블링이 많이 나오도록 옥수수나 콩을 먹인다. 이 사료의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종자(GMO)이다. 이러한 GMO 식품의 안전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유럽은 미국산 GMO 농산물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에서 나온 볏짚을 100% 사료로 공급한다. 또 소가 운동을 안하면 관절이 약해져 병에 걸리기 쉽다. 전남의 소는 충분한 방목장에서 사육되어 그런 염려가 없다. 현재 전남의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2006년 단 5농가에 불과했으나 2013년 말 기준 3,872농가이다. 전국 1위이고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축산물 농가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조사료 재배면적도 2005년 2,000ha에서 2013년 현재 6,500ha로 전국 재배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곤충산업

익충이든, 해충이든, 우리는 지금까지 곤충을 놓고 돈이 되는 산업화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곤충은 130만종이 넘고, 이 가운데 사람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종만 1만5,000종이다.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곤충을 미래의 식량이자 자원으로 산업화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세계곤충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11조원이고 2020년에는 3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곤충시장 규모는 2000년 1,600억원에서 2015년에는 3,000억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곤충을 이용한 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봉이나 양잠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학습 애완용(400억원), 해충 천적용(230억원), 작물 수정을 위한 화분 매개용(540억원), 지역 행사용(400억원)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곤충산업의 블루오션 시장을 내다보고 2010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2012년 5월에는 계획을 보완해 5개 분야 15개 사업에 319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다. 생산기반 확대, 유통구조 확립, 유용곤충 활용과 고부가가치 산업화, 곤충 독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연구사업의 중추를 전국 최초로 2011년 농업기술연구소가 수행하고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화, 연구개발,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미래산업이 연구소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되기에 전남도는 2013년 1월 곤충 사육농가 28명이 출자한 '녹색곤충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했다. 현장에서의 사육기술을 전수하고, 판매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2014년 1월 '전라남도 곤충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곤충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다. 단순히 식량, 사료, 약품, 애완에서 벗어나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 점에서 선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계란, 흑염소, 돼지, 한우 같은 축산물 품종별 유통회사 설립도 축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한 시도이다. 축산농가가 애써 생산해도 대기업 유통회사에 밀려 제값을 못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소득을 올리는 다양한 정책

2010년 9월 22일 설립된 '녹색계란 주식회사' 는 친환경 인증농가 47명이 18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출범했다. 이어 흑염소 사육농가 90명이 자본금 8억원으로 만든 '녹색흑염소 주식회사', 녹색돼지(2011년), 장흥한우(2012년), 황금닭(2013년), 녹색 곤충주식회사(2013년) 등이 연달아 설립돼 시장에 진출, 호평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가 이러한 축종별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나선 데는 전남지역 통합 브랜드를 육성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기업화를 추진하면 중간 판매상의 횡포를 막고 안정적인 판로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속 적합한 축종별 유통회사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3농정책의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결국은 모든 게 판로로 귀결된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농업, 농업인, 농촌이 힘든 이유는 바로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된 판매처 확보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는 농민 개인, 또는 몇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전라남도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양한 생산자 단체가 주축이 된 유통판매회사를 설립을 지원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단체·학교급식 공급 확대, 전남 친환경유통센터 구축도 병행했다.

2009년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공급을 시작하게 됐다. 전라남도는 수도권이 전남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 학교급식 시장을 선점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전문유통업체 대표를 초청해 ‘녹색의 땅’ 체험행사를 추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주)자연과 농부들 등 25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체결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서울시 학생들에게 50여 종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

또 수도권 2,934개 학교장들에게 도지사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 전남 고품질 쌀 구매를 홍보했다.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 끝에 전남산 쌀은 서울시에 학교급식 중 54%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2만8,430톤, 763억원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적재적소에 판매처를...

수도권은 큰 시장이다. 이 시장에 각 지역마다 사활을 걸고 자기네 농산물을 팔려고 한다. 전남도는 수도권에서의 전남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강남 농수산물시장과 연계된 직판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2년 6월 사업비 114억원이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만2,684㎡ 규모로 '전남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완공됐다. 이 센터 1층은 100% 전남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전시 판매한다. 2층은 전남산 식재료들 이용한 먹거리 식당, 지하 1층 수퍼마켓 역시 전남산 식재료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형시장을 겨냥한 판매루트 개척과 더불어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부장터' 운영과 마을반찬사업이다.

농부장터는 2008년 처음 시작하여 2010년에는 전라남도 주관 아래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다. 시·군의 유휴공간, 예를 들어 축제장, 관광지, 등산로 입구 같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좌판을 펼치는 방식이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터는 멜론, 생옥수수, 청국장 같은 곡성 특산물을 판매한다. 영광 설도항 장터에서는 젓갈류, 굴비, 건어물이 등장한다. 전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부녀회 등과 협력해 시장을 열었다. 수도권 지역 정기 농부장터는 2009년 5개소에서 2013년 10개소로 늘어났다.

농부장터는 주민이 가까이에서 쉽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부장터의 매출액은 규모가 작다고 무시할 일이 아니다. 2011년 104억원, 2012년 110억원, 2013년 132억원으로 해마다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마을반찬은 맛의 고장 전남의 음식솜씨를 바탕으로 착안된 사업이다. 2009년 전국 최초로 마을반찬사업을 시작했는데 소비자의 호응이 높아 히트작이 됐다.

성공의 원인은 엄정한 품목 설정과 수요조사가 적중한 데 있었다. 자기 지역 특산물과 음식솜씨가 버무려진 마을반찬은 시작 첫해 13개 시·군 13개소에서 2013년 20개 시·군 63개소로 급성장했다. 전라남도는 각 사업장에 1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63개 사업장 중 19개 사업장은 반찬을 상품화하기 위해 준비중이고 나머지 44개 사업장이 실제 영업 중이다. 44개 사업장의 2013년 매출은 38억원이다. 시작 첫해 올린 7억원에서 5배 이상 매출이 올랐다. 이 사업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은 농어촌 여성 334명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또 원재료 소비량도 1,006톤이나 되어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를 했다.

전라남도는 마을반찬사업장을 우수식품기업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2013년 7월에 '장성 마을반찬 주식회사'가 탄생했고 '전라남도 마을반찬협의회'도 발족시켜 신규 메뉴 개발, 브랜드 개발 및 강화, 공동 마케팅을 주관하게 했다. 마을반찬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곳에 가면 '행복마을'이 있다

농촌을 살리는 길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주거환경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점을 소홀히 해왔다. 정부 정책이라 할 것도 없었다. 겨우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 때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꾼 게 기억날 뿐이다. 그 슬레이트도 발암물질인 석면이 재료라 따지고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일 수도 있다. 한 시인은 초가지붕이 사라진 농촌을 두고 한민족 정서의 한 쪽이 없어졌다고 탄식했다. 이제 와서 다시 모든 농가에 초가지붕을 덧씌울 수는 없다.

2006년 8월 전남도에 전남부서로 '행복마을과'가 신설됐다. 행복마을 사업은 전통한옥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그리고 소득증대까지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외형적인 요소 못지않게 전남도가 행복마을 조성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은 이웃과 또 외지 방문객과의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공동체 건설이다.

2007년 시행 첫째 무안 약실마을을 시작으로 5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됐다. 전남형 농어촌 발전모델의 첫출발이었다. 이 행복마을 역시 처음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으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도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매년 약 30개소가 증가해 2013년 말에는 135개소가 행복마을에 추가됐다. 계획된 1,864가구의 한옥을 건립하고 있고 1,106동은 이미 완공됐다. 행복마을조성으로 얻어진 의미있는 변화는 농촌에 외지인구가 유입된다는 점이다. 2013년까지 행복마을에 새로 들어온 인구는 73개 마을에 2,290명이나 된다.

해남 매정 행복마을을 비롯해 9개 마을에는 한 마을에 50명 이상 새 인구가 들어오기도 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

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행복마을은 또 농외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한옥민박, 농산물 직거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2010년 11억원, 2011년 15억원, 2012년 22억원, 2013년에 25억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한옥 민박에선 외국인 참여자가 현재까지 1,332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행복마을 조성의 진정한 가치는 정이 오가는 따뜻한 이웃 공동체 건설이 빛을 발했다는 점이다. 행복마을이 2012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지역개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가 농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하고자 시도한 전원 마을도 전남이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담양 궁산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지정받은 마을만 51개소이다. 이 수치는 전국 164개의 32%를 차지한다.

뉴타운, 체험마을 조성도 앞서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역시 정부의 '농정 5대 미래전략 사업'의 하나이다. 도시의 젊은층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어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젊은층이 관심을 갖도록 교육, 복지 여건이 충족되고 쾌적한 주거 단지가 필요하다. 2012년까지 시행된 이 시범사업에 전라남도는 적극 참여해 장성과 화순에 전국 650세대의 62%인 뉴타운 400세대를 조성했다. 사업비로 총 928억원(국비 508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이곳에 전입한 인구는 1,036명이고 460여대의 자동차가 신규로 등록됐다. 이밖에 공사 기간 3년 동안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생산 자재 약 200억원 이상, 지역 하도급업체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매출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도 상당했다.

농어촌 체험마을 지난 10년간 130개소(농촌 94개소, 어촌 36개소)를 조성했다. 강진 달마지마을, 곡성 가정마을, 담양 무월마을, 무안 송계마을, 강진 서중마을 등 20여 개 농어촌 마을이 정부의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정부가 주도한 뉴타운, 체험마을은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시도한 행복마을과 연계돼 다른 지역 보다 시너지 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밖에 '농어촌 임차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임차료의 70%(상한액 월 35만원)를 지원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전남의 농촌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은 전라남도의 이 같은 농촌 주거환경 정책이 맞아

떨어진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귀농인구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전남지역 귀농인은 총 1만3,234가구(3만472명)이다. 2013년만 놓고 보면 3,261가구에 6,962명이 농촌에 신규 인력으로 들어왔다. 귀농인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시기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도시 개발도 약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전남도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풍광이 수려한 곳을 선정해 다양한 레저시설, 의료, 상업, 문화, 체육, 같은 도시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은퇴도시 개발은 인구 유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주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 소유자들이라 지역 특산품과 연계된 소득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2009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46개소(내륙형 32개소, 임해형 6개소, 골프장 주변 8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1차적으로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무안 청계 월선지구, 담양 금성지구가 선도사업지로 택했다. 2014년 추가로 지정된 후보지 2개소를 포함하면 총 48개소가 은퇴도시로 탄생될 예정이다.

목욕탕이 공짜

전라남도는 농민, 농촌의 복지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정책을 시도했다. 노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8,000개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농촌고령자들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경로당 38개소에 13억원을 투입, 노인공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영암 달 뜨는 집, 구례 행복 보급자리, 해남 땅끝 보급자리 등은 도비 지원없이 군자체 재원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마련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폐교를 활용한 노인공동생활시설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목욕탕 건립사업도 농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2006년 당시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198개 면단위 가운데 129개면에 공중목욕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 비금도는 당시 3,900여 명이 살고 있었음에도 목욕탕이 없어 주민들은 2시간 거리 이상인 목포에

갈 때나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인구가 줄고 소득수준이 낮아 공중목욕탕 이용자가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데서 빚어진 현상이었다.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공중목욕탕 없는 129개 면 전체에 목욕탕 만들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역시 재정이었다. 목욕탕 1개당 5~6억원이 든다. 129개면을 다 지으려면 700억원이다. 전남도는 절반의 예산으로 목욕탕을 건축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미 완공된 목욕탕 사용료 역시 아주 싸다. 그런데 전남도는 어떻게 해서 700억원이나 소요되는 목욕탕 건축비를 반값에 할 수 있었는가. 탕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 홀짝 수제로 운용해 건축비를 아끼는 지혜를 발휘했다.

농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또 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친환경 기숙사 건립, 기숙형 공립 대안 중·고등학교, 농어촌 학생 영어캠프 운영, 해외 영어연수 지원,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친환경 기숙사 건립은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 교육관계자들 모두가 큰 호응을 보낸 사업이다. 기숙사 내외부 자재가 편백나무, 고령토 점토벽돌, 황토바닥, 친환경 벽지를 사용했다. 이 친환경기숙사는 2011년까지 도비 81억원이 소요되어 총 23개교에 건립되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자는 751개교 16만8,648명 학생이다. 전남도는 이 무상급식에 연간 1,156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대안학교 설립엔 60억원을 지원했다. 이 대안학교로 인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부적응 학생 수가 24%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캠프 수혜자는 2013년까지 총 1만1,250명, 해외 어학연수 수혜자는 2013년까지 267명이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3년 516억원의 기금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장학재단이다. 2013년도 수혜자는 1,627명에게 총 12억 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삼농정책의 성적표

전라남도가 시행한 농촌정책 중에는 전국 최초가 유독 많다. 궁극통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농도 전남에 보탬이 된다면 시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산림소득과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목공예 센터 개관과 목공예 토요경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다목적 산간저류지 조성, 비교 우위 특산자원 산업화, 해안가 지역 조생벼 재배 확대 등이 그렇다. 이 중에서 매실, 비파, 황칠, 헛개나무, 멸꿀열매, 비타민나무 같은 지역 특산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의 식품과 의약품으로 개발하려는 정책은 관련 학계에서도 큰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가 과감히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멸꿀열매 성분을 연구해 ‘천연물신약 관절염 치료후보 물질’을 개발, 산업화에 성공한 데 대해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자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위한 전남도의 3농정책 시행 10년의 성취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하면 점수가 나온다. 통계청의 <2013년 농가 경제조사>를 분석하면 전남은 지난 해 전남의 농가소득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2012년(2,630만원)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3,38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농가소득은 2012년 전국 평균(3,103만원)의 80% 수준이었으나 2013년 전국 평균(3,452만원)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전국 순위도 2012년 9개 도 가운데 하위권(8위)에서 중위권(6위)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 농업외, 이전소득 등이 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친환경농축산에 의한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이 크게 늘었다. 부채는 2012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2011년 1,672만원, 2012년 1,853만원 부채인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932만원, 873만 이 적은 액수이다. 전남이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국 평균(37.3%)보다 6.4%가 높은 43.7%이고 노동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 또 농지가격 역시 낮게 형성돼 자본력이 부족한 여건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남은 통계치 이상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오른 셈이다.

‘2%산업’의 후유증

지난 40년간 명목 GDP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6년은 26.5%였는데 2000년 들어와 4.6%로 곤두박질치고 2012년은 2.3%로 떨어졌다. ‘2% 산업’으로 고정돼 버렸다. 그러나 전남은 6.34%(실질비중 8.07%)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농업비율이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농도의 특색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농업인구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1970년에는 전인구의 45.8인 1,442만 여명이었으나 2013년에 1/5수준인 285만명으로 줄었다. 전 인구의 5.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산업의 원인은 농업 홀대 정책의 산물이고 그 후유증은 언제든지 닥칠 식량위기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2~3년내 획기적으로 농업을 살릴 수도 없다. 농업은 공장 짓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땅을 되돌리는데, 농민을 양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농업 홀대 정책의 큰 피해자는 전남이었다. 무엇보다도 농사지을 젊은층을 농촌에서 찾기 힘들다. 60대가 마을청년회장이자 막내라는 말은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요 작물 수입국 신세로 전락했다. 2011년 기준 자급률은 쌀 83.0%, 콩 6.4%, 밀 1.1%, 옥수수 0.8% 순이다. 콩은 1970년도만 해도 자급률이 86%였다. 이러한 부족액은 수입해 오고 있는데 연간 48억달러(약 5조원)가 넘는 규모이다. 만약 기상이변, 국제간의 전쟁과 분쟁, 외교안보의 압력수단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식량수출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 과장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전남도는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의 선두에 서 있다. 3농정책으로 농촌을 살리려는 것은 바로 내일이라도 닥쳐올 식량위기를 방지하려는 또다른 몸부림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농업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을 나노 테크놀로지나 우주공학에 맞먹는 ‘미래산업’이라고 했다.

2011년 12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장남인 하워드 버핏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옥수수 수와 콩 농사꾼인 아들의 대답이 놀라웠다. “농사를 계속 지을 수만 있다면 버크셔 회장직을 맡을 용의가 있다”

하워드 버핏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맡겼다는 얘기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 그에게는 농사를 짓는 일이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우습게 아는 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일화가 아닐 수 없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역시 3농을 주창했다. 편농(편하게 농사를 짓도록 한다), 후농(이문이 남게 한다), 상농(농업의 지위를 높여준다)이다. 전남도의 3농정책은 바로 다산의 3농이념과 다르지 않다. 전남도의 3농정책은 전남을 넘어 나라 전체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3 3농정책과 친환경농업

1. 유기농·무농약 인증

농도 전남의 위기 봉착

세계화, 국제화의 바람은 국내 농업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2004년 무렵 FTA/DDA 협상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붕기하였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대량 재배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남이 친환경농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4,057ha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계속된 증산정책 하에서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에 의존하면서 농사짓는 것에 익숙한 농업인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었다.

전남, 친환경농업에 집중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으로 전남 농업의 운명을 바꿔보자는 결단을 내리고 2004년 「제1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실천하였다.

1차적으로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이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04년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육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설정이 라는 회의적으로 생각하여 추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고 시행초기에 관행농보다 많은 일손과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생산량이 낮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표준화된 실천기술이 정립되지 않다보니 농업인들에게 외면을 받기

일수였다.

전남은 이러한 난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환경농업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품목별로 재래식 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한 친환경농법을 매뉴얼화하여 친환경농업 전진기지로서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매년 10만명 이상의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마인드함양 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전남 친환경농업의 인식을 바꾸려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거기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전국적인 웰빙트렌드는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를 높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친환경농업 일번지, 전남

「제1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 당시만 하더라도 친환경 실천농가 4,060호, 인증면적 4,057ha, 생산량 56,005톤이었다. 그러나 1차 5개년 마지막 해인 2009년에는 농가수 110,385호로 27.2배, 인증면적 104,682ha로 25.8배, 생산량 1,275,304톤으로 22.8배 증가하였고, 인증면적도 당초 목표인 98천ha를 초과 달성한 105천ha에 달하게 되었다. 전남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연도별 인증면적 현황

(단위 : ha)

구 분	전 남(a)			전 국(b)			비 율 (a/b)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2004	1,407	416	991	13,062	4,622	8,440	10.8%
2005	2,907	697	2,210	19,898	6,095	13,803	14.6
2006	5,560	1,380	4,180	26,625	8,559	18,066	20.9
2007	12,067	1,476	10,591	37,017	9,729	27,288	32.6
2008	26,135	2,410	23,725	54,971	12,033	42,938	47.5
2009	42,760	2,745	40,015	84,382	13,343	71,039	50.7

아울러 친환경농업 관련업체수는 3.7배(04년 39개소→ 09년 146개소) 증가하였고, 고용인력도 3.0배(04년 214명→ 09년 649명) 늘어났으며, 경제적

가치 3조 9천억원, 취업유발효과 18천명으로 추정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도전을 넘어 도약으로 거듭나기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010년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약’을 완전히 배제한 유기농, 무농약의 비율을 2014년까지 각각 15%,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1조 6,620억원을 투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우수시책으로는 벼 친환경재배단지 6만ha에 잡초제거용 우렁이농법을 실시하였다. 우렁이농법은 기존의 제초제보다 비용은 50% 이상 저렴하면서 99%의 제초효과가 있다. 논 10ha당 일반제초제 사용 비용은 2만 4천 원인데 반해, 우렁이농법은 1만 2천원으로 50%의 절감효과가 있어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인 17만ha에 적용할 경우 연간 204억원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전라남도는 2013년에도 일반 답 4만ha에 새끼우렁이농법을 보급하여 전남 전 지역에 무제초제 농법을 실시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다.

둘째,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육성이다. 이 사업은 마을 전체 경지면적의 20%이상을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친환경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마을의 친환경적 생태환경 유지·보존, 그리고 브랜드화 된 체험활동 등을 통해 도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유기농산물 판매 등으로 이어져 도·농상생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셋째, 수생생물의 보고인 ‘친환경 둠벙(생태연못)’ 조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07년 12개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759개(목표 500개)를 조성하게 되었다. 둠벙 속에는 부레옥잠과 같은 수생식물은 물론,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 등과 같은 수생곤충, 미생물·무척추동물 등 각종 생물들이 살아나면서 빠른 속도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2009년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종합보험을 개발·시행하여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전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호막 제공으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연도별 인증면적 현황

(단위 : ha)

구 분	전 남(a)			전 국(b)			비 율 (a/b)
	계	유기농	무농약	계	유기농	무농약	
2010	63,054	3,323	59,731	110,051	15,518	94,533	57.3
2011	69,266	5,983	63,283	114,565	19,312	95,253	60.5
2012	75,948	9,134	66,814	127,493	25,451	102,042	60.0
2013	67,798	6,547	61,251	119,442	21,205	98,237	56.8

농도 전남,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친환경농업 실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전남하면 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업하면 전남’으로 통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화장품, 건강케어식품, 신약원료 등으로 소비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남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아직 희망이 있다.

2. 친환경 둠벙 조성

경지정리로 황폐해진 생태계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바람은 농촌에도 불어 닳쳤다. 농작업의 효율성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가 필요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농지정리는 필수요소라는 명분이었다.

농지정리는 네모반듯한 바둑판 논과 밭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형과 물길 까지도 바뀌버려 들녘의 둥벌과 시내, 도랑, 들샘과 같은 아기자기한 시골 풍경도 함께 없애버렸다.

경지정리 이후 농업인들은 전보다 편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수확하고자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땅속 유용미생물들이 감소하고 농경지는 황폐해졌다.

친환경농업 시작으로 다시 찾은 둥벌

악화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먹거리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작했던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조상들이 들녘 곳곳에 만들어 놓았던 둥벌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생물과 곤충 등 먹이사슬이 유지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둥벌은 수질 정화, 천적 서식처 제공으로 자연생태환경 복원과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도는 매년 둥벌 100개소를 조성해 2010년~2014년 5개년 동안 500개소를 목표로 개소당 2~3백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예전의 둥벌을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와 단지인근지역 및 유기농생태마을을 중심으로 계곡수, 하천수, 용출수 등 물이 순환할 수 있는 곳에 둥벌을 조성하였다.

대상지는 유기농 또는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지역과, 인근지역 중 자연수 확보가 가능하고 연중 물을 가둘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크기는 수심 1.5m~2m의 깊이에 총 면적 66㎡~99㎡ 규모로 인공적인 형태를 배제한 자연지형과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었다.

생태계 복원을 넘어 체험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기

당초 목표는 2014년까지 500개소 조성이었다. 그러나 논뿐 아니라 밭과 과수원 등에까지 조성하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1,135개소가 되었다.

특히, 도서가 많은 신안군의 경우 저수시설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섬지역의 둥벌 개설을 확대해 전체 282개소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도서지역의 모내기과 밭작물 해갈에 큰 도움이 되어 농작물 안전생육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생태계에서는 더 큰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조성 직후에는 생물종과 개체수가 적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크게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생태계 연구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둠병의 경우 2009년 생물종과 개체수가 22종, 51개체였으나, 2013년에는 23종, 66개체로 증가하였다. 인공둠병 역시 17종, 23개체에서 18종, 59개체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둠병의 생물다양성 변화

연 도	자연 둠병		인공 둠병		조사 지역
	종 수	마리수	종 수	마리수	
2009	22	51	1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양 대덕 금산리, 고서 성월리 ○ 강진 옴천 정정리, 군동 용소리 ○ 곡성 죽곡 봉정리, 곡성읍 구원리
2011	22	43	15	35	
2012	20	39	16	36	
2013	23	66	18	59	

* 생물종 : 물달팽이류(애기물달팽이, 원돌이물달팽이), 논우렁이, 다슬기, 하루살이류(연못하루살이), 잠자리류(아시아실잠자리, 실잠자리), 물방개, 소금쟁이, 새우류(민물새우), 물벌레류(근물벼룩, 물벼룩), 장구애비, 물자라, 피라미, 어류(붕어), 송장헤엄치게, 거머리, 물맹꽁이, 딱정벌레류

특히, 주로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날도래, 실잠자리, 연못하루살이, 민물새우, 소금쟁이, 피라미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교육장 및 친환경농업의 지표로 활용해 청정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최근에는 도시학생들에게 농촌체험과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둠병을 통해 도농교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둠병은 농업용수 공급, 수질개선, 생태환경복원, 생태체험 및 관광 등 1석 4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안군 몽탄면 내대리 친환경농업단지 내 둠벌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친환경 농업단지 내 둠벌



화순군 도곡면 평리 친환경농업단지 내 둠벌

3.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폭설이 준 선물, 친환경축산

국내 축산업은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던 2010년 겨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발생은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할 만큼 피해규모도 상당했다. 그 후유증도 예상보다 커서 축산물의 부족은 물론, 원유 공급부족으로 우유, 치즈 등 부가생산물의 가격이 폭등하기에 이르렀다.

구제역 공포가 전국을 뒤덮을 때에도 전남만큼은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2005년 46년만의 기록적인 폭설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당시 농업관련 기반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비닐하우스 형태 축사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 농가의 피해규모가 컸다. 열악한 축사환경,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다.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축산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가축사육밀도 준수, 충분한 햇볕과 운동 공간 확보, 자연 환기 등을 통한 면역력 강화, 조사료 생산 확대 등 18개 사업에 7,1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면역력 키우기

전남의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 실천으로 도내 1,300여 농가에서 가축 운동장을 확보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육방식을 개선하게 되었다. 그리고 축사시설의 현대화 지원으로 1,103농가가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깨끗한 농장 가꾸기, HACCP지정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녹색축산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2009년 전국 최초로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道)와 22개 시·군이 분담하여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기금 1천억원 적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말까지 54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및 도축, 가공, 유통업체 등에 285억원을 기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관행축산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녹색축산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농가와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역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 조례에는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표시 및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담고 있다.

친환경축산 전국 1위, 조사료 생산 전초기지 육성

그동안의 노력으로 2006년 당시 단 5농가에 불과하던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2013년 말 기준 3,872호에 이르러 전국 1위, 전국의 36%를 달성하게 되었다.

친환경 조사료 재배면적도 2005년 2천ha에서 현재는 65천ha로 전국 재배 면적의 4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합사료 위주의 급여방식을 탈피해 조사료 위주의 급여방식으로 바꾼 결과 소 1두당 267천원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조사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료 재배단지 12개소 8,200ha를 조성하고, 이의 가공판매를 위하여 강진, 고흥, 영광에 조사료 유통센터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는 전국적인 조사료 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최대의 양질의 조사료 생산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4. 곤충산업 육성

곤충, 자원이 되다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종이 넘는 자원이다. 이중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류는 약 1만 5천종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곤충을 미래 식량으로 자원화, 산업화하는 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무조건적인 제거와 기피의 대상이었던 곤충이 최근에는 식량, 사료 등 다양한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세계 곤충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11조원이고, 2020년에는 3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2000년 1,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5년에는 3,000억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곤충산업은 양봉, 양잠과 같은 수준에 그쳤으나, 2000년대부터 학습애완용(400억원), 해충 천적용(230억원), 작물 수정을 위한 화분매개용(540억원), 지역 행사용(400억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전남의 곤충산업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어 2010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 근거해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농업기술원에 곤충잡업연구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메뚜기, 지네, 바퀴벌레 등의 대량 사육체계 개발, 곤충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산업 등을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화 및 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12년 5월에는 곤충산업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생산기반 확대, 유통구조 확립, 유용곤충 활용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곤충홍보 강화, 곤충유해 물질을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연구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에 사업비 319억원 투입으로 곤충산업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곤충 사육농가의 안정적 판매처 개발을 위해 2013년 1월 곤충농가 28명이 출자한 '녹색곤충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곤충산업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곤충생산 및 판매 등 총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곤충농가에 대한 사육기술 및 관련 정보제공, 곤충사료화를 위한 시제품 및 소비자

개발 등 곤충산업 생산 및 판로 개발이 더욱 활발해졌다.

아울러 도청 축산정책과, 도청 곤충잡업연구소, 생물방제재단, 곡성군, 순천대, 녹색곤충주식회사 등 전남 도내 곤충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곤충산업 육성방향 협의 등 정보교환이 활발해졌고, 2013년 3월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과 DB 구축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곤충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의 취약한 곤충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식·의약·사료용 소재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곤충자원의 관광산업화, 전문 기술인력 육성 등을 통해 곤충자원을 활용한 도민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곤충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육성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5. 축종별 유통회사 설립

축산 유통의 불리한 여건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36%)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축산물 생산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유통조직의 미확보와 낮은 브랜드 인지도,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 지역과의 원거리로 물류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 공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사육농가의 조직화·규모화로 시장교섭력 확보

이에 전남은 생산·가공·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설립으로 전남지역 통합브랜드를 육성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고, 기업화가 가능한 축종을 발굴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기업화를 추진하였다.

전라남도는 사육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사업타당성 컨설팅과 설명회, 협의회, 간담회, 벤치마킹 등을 선행하고, 다음으로 사육농가를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10. 9. 22일 전국에서 최초로 계란 사육농가가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녹색계란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녹색계란 주식회사는 친환경 축산물생산 인증농가 중심의 산란계 사육농가 47명이 18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하여 출범하였다. 전문 경영진의 지휘하에 나주시 식품산업단지 내에 거점 계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계란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추고 신선란과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나아가 액란, 훈제란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춰 사업다각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녹색계란에 이어 흑염소 사육농가 70명(15개 시·군)이 자본금 8억원을 조성하여 출범한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위생적인 전용 도축장을 설치하고, 음식점 직판, 대형마트, 정육점, 먹거리촌 등 판매처를 확보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흑염소 엑기스 생산 등 가공·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두 곳의 기업화가 성공하면서 2011년 녹색돼지와 장흥한우, 2012년 황금닭, 2013년 녹색곤충 주식회사 등이 연이어 설립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육농가들이 힘들게 생산한 축산물들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축산물의 수급조절 능력은 물론 고품질의 제품 생산으로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이미 설립된 축산물 유통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벌꿀 등 조직화·규모화가 가능한 축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민들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녹색돼지 가공장



장흥한우 판매장

6. 수도권 단체·학교급식 공급 확대

이제는 단체급식도 친환경농산물로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온 힘을 다해왔다. 지난 2004년 수립한 「생명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업은 2013년 말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0%,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친환경농업 1번지’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생산 뿐 아니라 유통구조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동안은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직거래나 한살림, 생협 등 생산-소비 연계조직을 통한 유통이 대부분이었지만,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일환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이제는 단체급식이 친환경농산물의 중요한 유통경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식시장 선점

전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이제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학교 및 단체 급식 식자재 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예로써, 2009년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시범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담도는 서울시 학교급식 시장의 공략을 위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전문 유통업체 대표 등을 초청해 ‘녹색의 땅’ 체험행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업무협약을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중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년에는 (주)자연과농부들 등 25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50여종을 서울시 학생들에게 식재료로 공급하게 되었다.

농산물의 안정성이 중시되는 분위기는 각급 기관·병원·기업 등의 단체급식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고,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집중 공략한 결과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급식 시장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수도권 1,934개 학교장들에게 직접 도지사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전남 고품질 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남산 쌀은 서울시내 학교급식 중 54%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28,430톤, 763억원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견인차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생산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았고, 광역거점센터를 통해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생산·유통체계 구축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때문이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0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회 이후 최초로 전국 12개 브랜드 중 절반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남산 쌀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쌀로 입증된 것이다.

앞으로도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친환경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지역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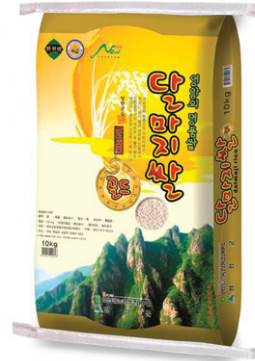
2013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우수 브랜드



녹차미인 보성쌀



수호천사 건강미



달마지쌀 골드



대숲 맑은 쌀



아르미쌀



황토랑쌀

농촌 체험행사



7. 전남 친환경식품 유통센터 구축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다

전남의 농가인구는 2012년 기준 371천명(164천호)으로 전국 농가인구(1,912천명, 1,151천호)의 19.4%로 전국 평균 농가인구 비율 5.7%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82천ha로 전국 164천ha의 50%를 점유하는 등 ‘친환경농업 1번지 녹색의 땅 전남’의 가치 평가에 부합하고 있다.

수도권 소비자 공략 전략 수립

전남도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은 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가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량판매를 위한 규모화된 물류저장창고와 유통센터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소비자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거점을 모색하던 중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길 29번지(개포동 107-2,3)에서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된 ‘강남 농수산물 직판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현대식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키로 결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강남 농수산물 직판장의 철거와 신축과정에서 전남의 도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수정마을 거주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거주자 16세대 중 완전 점유자 3세대의 이주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슬기롭게 해결해 건축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공사착수 1년 3개월만인 2012년 6월, 사업비 114억원이 투입된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2,684㎡인 ‘전남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완공되었다. 수도권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인 강남구에 전남의 농수축산물을 판매·유통하는 거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서울에서도 전남산 먹거리 직거래 가능

현재 ‘전남 친환경식품 유통센터’ 1층은 100% 전남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에서는 전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식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하 1층 슈퍼마켓에서는 전남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로 활용하고 있는 등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1년 내내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가설건축물로 운영하던 '강남 농수산물직판장' 전경



현재 운영중인 '전남 친환경식품 유통센터' 전경

8. 농부장터 운영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와 저렴한 구입통로 필요성 증대

세계화, 개방화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무분별하게 대량 유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규모 농가들은 생존기반을 잃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농산물 소비 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다. 또한 2004년부터 전남이 온 힘을 기울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산물인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확보 역시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가들은 자식과도 같은 우수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통로로 ‘농부장터’ 운영을 구상하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판로 구축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다

2008년 6월부터 매주 금요일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5개 지역에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을 개설·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파머스마켓이라는 명칭이 생소하여 이용자들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보다 친숙한 ‘농민장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날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되고, 개설 장소도 광주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장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터 운영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판매가 용이한 공원, 아파트 밀집지역, 광장 등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컸고, 행정 기관에서도 노점상, 무단 주정차 등 민원발생의 이유로 개설을 반대하는 등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산재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품과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판매 품목을 조정하고, 관계 행정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농부장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협조를 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에는 그동안 도 주관으로 운영하던 농민장터를 시·군 자체적으로 운

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시·군별로 축제장, 문화관광지, 등산로 입구 등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예컨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장터는 기차체험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론, 생옥수수, 청국장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영광 설도항장터에서는 영광의 특화된 젓갈류, 굴비,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등 장터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산품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2013년에는 농부장터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직거래장터의 명칭을 농부장터로 통일하고 시·군 자율운영과 더불어 도가 주관이 되어 광주·전남(목포, 순천)에 정기 농부장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아울러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해 농부장터 참여농가들을 대상으로 유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자 실명제 및 가격표시제 등을 실시하고, 위생용기 사용·판매 권장 등 품질관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도내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전라남도과 시·군 주관으로 자매결연 시·구청 및 아파트 부녀회 등과 협력하여 연간 200회 이상의 농부장터를 운영하였다. 특히, 서울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지역 정기 농부장터를 2009년 5개소에서 2013년 10개소로 확대하였고, 서울광장, 청담역사, 강남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도권 순회 명품전을 개최하였다.

더불어 농부장터가 단순히 농산물 직거래장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고, 직거래를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간 상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위해 주부, 어린이, 대학생, 유통업체 관계자, 학교급식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초청 행사를 매년 5~8회 실시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농부장터

그 결과, 농부장터를 찾는 단골 고객도 생겨났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재구매하는 고객도 크게 증가했다. 농부장터에 참여한 농가들은 제품판매 뿐 아니라, 우수한 농산물의 홍보의 장으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총 매출액도 크게 상승해 2011년 104억원, 2012년 110억원, 2013년 132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물론 농부장터가 전체 유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비하나, 농부

장터는 농가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동시에 농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기존 유통 경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로 지속·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치평동 농부장터



곡성 기차마을 농부장터

9. 마을반찬사업

맛의 고장 전남, 마을반찬사업에 도전하다

예로부터 전남은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농산물과 청정 바다가 제공하는 싱싱한 해산물로 만들어진 '맛의 고장'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거기에 남도 특유의 인심과 손맛이 더해져 여전히 감칠맛 나는 음식의 명맥을 잇고 있다.

전국 제일의 맛의 고장인 만큼 이를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고심하던 중 2009년 전국 최초로 '마을반찬사업'에 도전하였고, 이제는 전남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반찬사업이 지역의 효자

전남이 맛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반찬 사업장 선정을 위해 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단체 중심의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소가 사업을 신청하였고, 엄격한 심의 끝에 담양 꽃차마을추진위원회 등 13개소를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13개 사업장에는 각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작업장, 저온저장시설, 포장기계류, 위생시설 등을 지원하여 마을반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 시작 첫 해인 2009년, 담양군 등 13개 시·군 13개소로 시작한 마을반찬 사업장은 매년 10개 이상의 신규 사업장을 발굴·지원해 왔고, 그 결과 2013년 20개 시·군 63개소로 급성장 하였다.

이들 63개 사업장 중 19개 사업장은 반찬을 상품화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44개 사업장은 연중 운영하고 있다. 운영중인 44개 사업장의 2013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38억원으로 2009년 7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성장하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한편, 마을반찬사업은 매출 신장 뿐만 아니라 농어촌 여성 등 334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농특산물 소비량도 1,006 톤으로 증가하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을반찬사업도 이제는 융·복합 시대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판로개척이 큰 몫을 차지하였는데, 마을반찬 상품의 안정적 판매를 위해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을 비롯해 서울 공릉동과 중계동 2개소와 광주 수완동, 월계동, 첨단, 양산동 등 6개소에 마을반찬 코너를 개설·운영하여 고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였다.

또한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마을반찬특별전을 개최하고, 내일신문 등에 언론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의 고정 소비자를 확보하고자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반찬사업장 대표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반찬사업에 대한 경영마인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영기법과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마을반찬 사업장을 지역의 우수 식품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 7월부터 '장성 마을반찬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마을반찬협의회'를 발족하여 마을반찬 신규상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공동마케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을반찬사업자, 유통조직, 농협, 행정기관간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기업화·규모화 및 융·복합 상품개발 등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10. 행복마을 조성

급속한 인구유출, 전남의 존립 위기 봉착

1960년대만 하더라도 330여만명을 웃돌던 전남의 인구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적인 이농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전남 인구의 심리적 지지선인 200만명이 무너지게 되었고,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과소마을의 수가 급증해 자연부락의 몰락은 물론 농어촌 사회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종합적인 마을가꾸기 사업, 행복마을 조성 착수

전라남도는 수 천년동안 이어온 마을의 명맥을 유지시키고, 제대로 된 마을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행복마을’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훈훈한 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한 행복마을 사업은 전통의 한옥에서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편리한 정주여건, 그리고 소득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위기에 처한 전남 농어촌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2006년 8월 행복마을 조성사업 전담부서인 ‘행복마을과’가 설치됨으로써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제1호 행복마을인 무안 약실마을을 포함해 5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전남형 농어촌 마을 발전모델인 행복마을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후 폭발적인 도민의 수요에 힘입어 매년 약 20개소씩 증가해 2013년 말에는 135개소의 행복마을이 선정되었고, 1,864가구의 한옥을 건립하고 있다. 이중 1,106동은 이미 완공되어 지역민은 한옥의 멋스러움과 쾌적함을 누리고 있다.

행복마을 조성현황

연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을	135	5	16	23	22	24	34	11
한옥동수	1,864	141	217	347	317	283	306	253

행복마을 조성 7년, 지역의 활기를 되찾다

행복마을 조성 7년의 성과는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부분으로 인구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인구는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행복마을로 선정되면서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2013년 말까지 외지에서 행복마을로 유입된 인구는 73개 마을에 2,290명이고, 한 마을에 50명 이상 전입한 마을도 해남 매정행복마을 등 9개 마을에 이른다. 유입된 인구 중 절반정도인 1,096명은 타 시도민으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의 입장에서 행복마을은 인구유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두 번째 성과는 주민소득의 급증이다. 기존 마을과 달리 행복마을은 농외 소득으로 인한 소득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행복마을 내에서 한옥민박과 농특산물 직거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10년 11억원, 2011년 15억원, 2012년 22억원, 2013년 25억원으로 해마다 농외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행복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여유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행복마을 소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한옥민박	농특산물 판 매	체 험 프로그램	비 고
계	7,285	2,997	3,811	477	
2010	1,149	237	912	-	
2011	1,473	636	729	108	'10 대비 28% ↑
2012	2,159	1,077	929	153	'11 대비 46% ↑
2013	2,504	1,047	1,241	216	'12 대비 16% ↑

세 번째는 도농 교류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마을로의 변화이다. 행복마을은 2013년까지 23개 행복마을과 54개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이 1사(교)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해 꾸준히 왕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기관의 워크숍, 학교 현장교육, 촬영지 등으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한옥민박 체험 행렬 또한 꾸준히 한국을 배우는 학습현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한옥민박체험은 현재까지 1,332명에 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체험객을 맞을 예정이다.

네 번째 변화는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이다. 행복마을의 궁극적 목표이자

종착점이 자립과 범죄 없는 훈훈한 공동체라면, 리더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결집은 필수요건이다. 때문에 지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통해 행복마을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 운영의 피드백을 위해 행복마을 종합평가 및 현장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담양 무월, 장흥 신덕 등 몇몇 행복마을에서는 마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정신이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지막 성과는 전남만의 독특한 브랜드가 아닌 미래 농어촌마을의 발전 모델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전남의 특수시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의 발전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지역개발분야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에서도 행복마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및 각종 연구기관의 행복마을 벤치마킹은 전남의 행복마을이 앞으로 커다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담양 유천행복마을



담양 무월행복마을

11. 은퇴도시 개발

은퇴, 사회문제로 대두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의 화두는 아마도 은퇴와 노후생활일 것이다. 이 배경은 전후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이다. 이로 인해 노후생활 문제가 야기되었고,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동시에 그동안 개인의 몫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은퇴 후의 생활이 이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은퇴에 대한 설계와 은퇴 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있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대표적인 은퇴도시 미국 플로리다는 은퇴자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주거와 골프, 승마 등 다양한 레저시설, 의료·상업·문화·체육 등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분양·입주 후에도 입주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은퇴자 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플로리다, 은퇴자 천국 전남 건설

이러한 모습을 이제는 청정 전남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은 미국 플로리다와 같이 은퇴도시의 기본요건인 따뜻한 기후와 각종 레저스포츠의 향유뿐 아니라 저렴한 생활비와 지가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은퇴도시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우수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시작한 은퇴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 3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접근성, 자연조건, 지역발전성 등을 평가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46개소(내륙형 32, 임해형 6, 골프장주변 8)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은퇴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지구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고,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규모 과대, 금융기관 대출억제 등으로 사업비 확보 곤란 등 개발사업자 투자유치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이 다소 주춤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작정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은퇴도시의 사업성을 먼저 보여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하였다.

사업예정지의 일부 토지를 이미 군에서 매입하였으며, 우드랜드·슬로시티 등 친환경적 요건을 고루 갖춘 '장흥군 정남진 지구'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장흥군과 공동으로 집중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2010년 10월에는 랜드로버스코리아(주)와 정남진로하스타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13세대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착공해 2011년 6월 준공하였다.

한편, 전남은 약 7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을 적극 대비하기 위해 2013년 8월 은퇴도시담당관실을 신설하였고, '은퇴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계획'을 확정·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은퇴도시 상담센터'를 개원해 투자유치 활동, 투자 정보 제공, 현지답사 안내, 행정절차 및 기반시설 등을 상담·지원하기 위해 은퇴도시담당관을 중심으로 2개 팀 7명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대학교수 등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은퇴도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였다.

전담부서 설치 후 꾸준한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로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무안 청계 월선지구’, ‘담양 금성지구’ 등 3개소의 선도사업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전라남도, 장흥군, 랜드로버스코리아(주), 대우산업개발(주), (주)대명기술개발과 함께 2013년 9월 3,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일원 현장에서 전국 최초의 은퇴도시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장흥 로하스타운 조감도

풍요로운 인생이모작 실현 기대

전라남도는 2014년부터 추가로 지정된 후보지 2개소를 포함해 48개소가 연차적으로 개발되면 도시민 유입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과 도민 200만 시대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한국의 플로리다’, ‘은퇴자들의 천국’ 건설에 매진할 것이다.

전남의 은퇴도시는 단순히 입주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주 후에도 다양한 레저시설과 재할, 오락, 친목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 교류의 조성 및 전남 은퇴자협회를 설립·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생산·가공·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은퇴자들에게 제2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은퇴자들이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2. 전원마을, 뉴타운, 체험마을 조성

인구유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처지

전남의 인구 감소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산업화, 현대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농촌의 젊은 인력은 도시로 향했다. 그 결과 지역 인구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의 인구 급감은 몰락해가는 농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인구는 고령화되었고,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며 그야말로 활기를 잃어갔다.

전라남도도 지속적인 인구감소, 빠른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정주기반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민 유치 사업으로 손꼽히는 전원마을과 농어촌뉴타운, 체험마을 조성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면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주기반 조성으로 농어촌에 활기 불어넣기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입하고, 농촌인구를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남은 지역의 대표적 비교우위 자원인 풍부한 일조량과 음이온, 피톤치드를 발생시키는 풍부한 숲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원마을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전남의 핵심 시책인 행복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양 사업 간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마친 전원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하여 한옥 건축 보조 및 용자금 지원하게 된다.

그 결과, 2004년 담양 궁산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51개소(전국 163개소의 32%)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아 국비 537억원을 확보하였다.

전남 일원의 51개소 전원마을 중에서 28개소는 이미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주택을 건축 중이다. 곡성 태평마을(109세대)과 나주 신평마을(한옥 30세대)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연도별 지구 수 및 주택건축 현황

(단위 : 지구 및 세대수)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망)
지구 수	연도별	1	5	4	1	8	4	9	6	4	6	3
	누계	1	6	10	11	19	23	32	38	42	48	51
주택 건축	연도별	-	-	-	15	15	10	40	85	147	95	150
	누계				15	30	40	80	125	272	367	517

도시 은퇴자 등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2014년 3월 기준 374동에 819명이 이주했고, 2015년 말까지 1천세대 이상이 입주함으로써 전남 인구 증가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농정 5대 미래전략 사업’으로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과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9년~2012년까지 전국 5개소(650세대)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전남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에 총 928억원(국비 508, 지방비 420)을 투입하여 장성과 화순 2개소에 400세대(전국 650세대의 62%) 규모로 조성하였다.

이곳으로 전입한 타 시도민은 1,036명이고, 460여대의 자동차가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공사가 추진되는 3년 동안 2백여명의 일자리가 지역에 창출되었고, 지역 업체 생산자재가 약 200억원 이상 사용되었으며, 지역 업체 하도급 효과도 2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은 전원마을, 행복마을과 연계하여 지역별 비교우위 자원을 특화한 체험마을 발굴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그 배경에는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정신적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머무르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화될 것임을 간파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도는 도시민의 취향에 맞고, 질 좋은 체험이 상시 가능한 농어촌 체험마을을 꾸준히 조성해 지난 10년 동안 130개 농어촌 체험마을(농촌 94, 어촌 36)을 조성하였다. 이중 34개소는 아름다운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한옥(행복)·체험마을로 조성되어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진 달마지마을, 곡성 가정마을, 담양 무월마을 등 10여개 마을이 농식품부가 선정한 루털-20 프로젝트 마을¹⁾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우수 어촌체험마을경진대회에서는 무안 송계(06), 강진 서중(13)마을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20여개 마을이 입상하여 47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연스럽게 방문객 수 증가와 농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등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의 재발견, 살고 싶은 전남을 위한 더 큰 도약

앞으로도 전남은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땅’, ‘한국의 플로리다’ 등 전남에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층 성숙된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등 정주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개선뿐 아니라 주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 인구 증대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소득창출 기반 마련 등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과 함께 새로운 농어촌 생활을 만끽하며 꿈 꿀 수 있는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체험마을을 도내 곳곳에 조성·발전시키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1) 농식품부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홍보하고자 한국적 경관과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및 관광명소 20개소를 선정하는 사업



화순 잠정지구 햇살마을



장성 유평지구 뉴타운

13. 노인공동생활시설

고령화 전남, 경로시설 대비책 시급

최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독거 노인의 고독사,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홀로 사는 노인들은 열악한 주거시설, 불규칙한 식사,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노인공동생활시설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독거노인들을 안전하게 케어하는 동시에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전남형 노인주거복지 모델 구축

전남에서는 2005년부터 노인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시설 운영 초기에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 가능하도록 개보수하여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마련하였고, 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로드맵에는 도내 8,000여개에 달하는 경로당을 모두 노인공동생활시설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단계적으로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노인공동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10년간 경로당 38개소에 13억원을 투입하여 노인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였다.

시·군 역시 이러한 도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영암 달뜨는 집, 구례 행복 보금자리, 해남 땅끝 보금자리 사업 등은 도비 지원 없이 시·군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라남도 경로당 노인공동생활시설 현황

시 군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38	5	6	5	5	5	3	3	3	3
목 포	1									1
여 수	3		3							
순 천	2		1			1				
나 주	1								1	
광 양	2	1		1						
담 양	2		1		1					
곡 성	1	1								
구 례										
고 흥	4				1	1		2		
보 성	2	1		1						
화 순	1				1					
장 흥	1			1						
강 진	1		1							
해 남	1									1
영 압										
무 안										
함 평	2								1	1
영 광	6			1	1	1	2		1	
장 성	1	1								
완 도										
진 도	4			1	1	2				
신 안	3	1					1	1		

아울러 도내 폐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공동생활시설을 확대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2개월간 도내 농어촌 폐교 141개소를 전수 조사해 활용 가능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화순군 북면 아산초등학교 송방분교장 폐교를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해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로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213백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화순군에서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도 교육청과의 폐교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2014년 말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우리 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자체 추진

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국고건의를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전남의 고령자 지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2014년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 공모결과 전남도는 공동생활 홈 5개소, 작은 목욕탕 2개소, 공동급식시설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독거노인 종합지원단지로 단계별 확대 추진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독거노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안적 복지모델 창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공동작업 현장

14. 귀농인 유치

귀농·귀촌 희망자 급증

최근 들어 도시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는 등 귀농·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귀농·귀촌자는 2010년 4,067가구, 2011년 10,513가구, 2012년 27,000여 가구(47,000여명)로 지난 몇 년 사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전남으로 향한 귀농·귀촌 인구도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1년 1,521세대, 2012년 2,492세대, 2013년 3,261세대(6,962명)가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 귀농·귀촌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귀농·귀촌인의 희망이 되는, 준비된 전남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남으로 향하게 된 데에는 전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3농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라남도도는 매년 감소하는 전남 인구에 위기감을 느끼고,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농업인을 아우르는 3농 정책을 기본으로 2005년 「생명농업 1차 5개년 계획」 수립과 2006년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행복마을과 농어촌마을 목욕탕 건립사업,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2011년 5월 「귀농인 1만가구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귀농인세대 유치목표를 설정해 시·군과 함께 온 힘을 다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귀농인 창업자금(세대당 2억원 한도)과 주택구입자금(세대당 4천만원 한도)을 연 3%, 5년거치 10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주택수리비(세대당 5백만원)는 물론 시·군 귀농인 모임체를 구성해 활동을 지원

하고, 영농경력이 없는 귀농인을 위해 귀농실습비용을 지급하여 선도농가에서 실습케 하는 귀농인 영농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군에서는 귀농 정착지원금과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급, 귀농인의 집(13개소)을 조성하여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농가주택과 농지구입 정보를 습득하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보활동 역시 강화하여 홈페이지 내에 ‘전라남도귀농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귀농인들이 필요로 하는 단계별 귀농준비사항, 시·군별 귀농지원정책, 주요 농산물 품목, 귀농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귀농복덕방코너’에서는 귀농인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농지, 농가주택,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등의 매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도시만 유치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 홍보간판 개척과 수도권 귀농교육기관에서 ‘찾아가는 귀농설명회’ 개최, 수도권 귀농교육생 유치를 위한 ‘수도권 귀농인 현장교육’,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 적극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각고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여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80억원(국비 40, 지방비 40)의 사업비로 구례군 용방면 친환경실험장 일원에 61,737㎡의 부지를 조성하여 주택 30동, 텃밭 30개소, 교육장 1개소, 시설하우스, 퇴비장 등을 만들어 귀농인들이 1~2년간 살면서 직접 영농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전남은 은퇴자, 귀농·귀촌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한국의 플로리다',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제2장 7대 분야별 역점추진 시책
제3절 3농정책과 친환경농업



1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은 인구유출로 이어져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 때문인지 오랫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특히, 교육열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문제로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면서 농어촌은 공동화, 도시는 과밀화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재를 통해 전남의 운명을 바꾸자

열악한 교육문제를 정부나 교육당국에만 의지한 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입장에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련 연구와 시책도입 검토를 추진했다.

가장 먼저,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2007년 9월부터 전라남도과 도교육청, 전남발전연구원,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전남 TF팀을 구성하고, ‘전남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 연구결과 보고회 등을 거쳐 교육시설기반 구축,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교육여건 조성, 진로·직업교육지원,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및 건의사업 등 6개 정책과제, 60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하였다.

세부실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도교육청, 22개 시·군과 지역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사)한국외국어평가원 등 관계 교육기관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에 공동으로 참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계기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식재료’를 시범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학교급식에 100%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도내 보육시설을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확대해 2014년 현재 2,578개교 315,157명에게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 메뉴



학교급식 배식

또한 학부모의 부담해소와 성장기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읍·면·도서지역 초·중학교 615개교, 83,441명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2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성장기별 급식량을 감안한 단가인상과 소규모 학교의 식품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751개교 초·중학교의 168,648명의 학생들에게 1,156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南道日報

2011년 03월 08일(화) 02면 종합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박준영 전남지사, 남양초교 시식체험서 강조

전남도가 지난 3일부터 도내 읍·면지역 전체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가운데 박준영 도지사가 7일 무상급식 시식체험을 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무안군 삼향읍 남양초등학교에 위치한 남양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이어 학생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시식을 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읍·면지역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며 “건강이 곧

경쟁력이라고 느낀한 식습관을 길러 전남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좋은 품성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급식비는 부자들에게만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이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은 꼭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지정 형편을 고려, 국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부터 109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도시 풍지역 초·중학교까지 확대를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ocr@namdorenews.com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7일 무안군 삼향읍 남양초등학교를 방문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민전을 배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일부터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전남도 제공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차별화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기숙사 신축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등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2009년 기숙형 공립고 16개교의 친환경기숙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57억원과 2011년에 추가로 7개교 25

역원 등 총 23개교에 도비 81억원을 지원해 친환경 기숙사 건립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과 적성개발 위주의 특성화학교인 기숙형 공립 대안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3월에 한울고등학교, 2013년 3월에는 청람중학교를 각각 9개 학급 180명 정원으로 개교해 200여명의 재학생들에게 인성중심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근 3년간 도내 학교부적응 학생의 발생률이 24%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교육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놓어준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다시 찾는 전남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장성문향고 - 문향학사



고흥고 - 팔영학사

광주 매일신문

2010년 06월 29일(화) 09면 지역

전남 공립고 친환경기숙사 인기 절정

16개교 편백·황토 등 사용...만족도 높아
아토피 등 피부질환 효능·학업성취 제고

전남도가 놓어준 지역 기숙형 공립고에 편백·황토 등 친환경자재를 활용해 건립한 친환경기숙사가 아토피 등 피부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탁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다양하고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 지정된 기숙형 공립고에 전남지역 16개 학교가 포함돼 기숙사를 신축하게 됐으며 특히 전남도는 도교육청에 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국 처음으로 친환경기숙사를 건립해 지난 4

월 모두 마무리됐다. 친환경기숙사는 기숙사 내·외부 마감재를 편백 나무와 고령토점도벽돌, 황토바다, 친환경 벽지 등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특히 환경성 질병인 아토피나 천식 등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건강을 지키면서 쾌적한 학습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게 됐다. 실제 장성 문향고 학부모 최서연

씨는 "기숙사가 환경이 쾌적한 친환경적 자재로 만들어져 요즘 유행하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등 환경성 질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방효과가 있어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맡길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구례고 학부모 김수정씨는 "황토로 사용해서인지 예뻐 건강에 좋은 것 같다. 이런 집에 살았으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분위기도 안정적이어서 아이들 학업성취도

를 올리는데 최상의 환경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흥고 구용태 운영위원장은 "친환경기숙사에 대한 인기가 매우 좋아 입사 경쟁률이 높고 학부모들도 만족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친환경기숙사 건립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기숙사를 지어 준 전남도의 도교육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284기지 star55@vdaik.com
28.4 X 9.0 cm

16. 농어촌 학생 영어캠프 운영

낙후된 외국어 교육 여건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특히, 영어교육의 경우 사교육에 따른 지역과 계층간 학습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도농간 영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영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영어체험캠프

전라남도는 그동안의 문법·독해 위주의 정형화된 영어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영어와 영어권 문화의 이해를 통해 영어 학습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2007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영어 체험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 첫해에 810명의 학생을 선발해 2013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영어체험캠프는 529명의 원어민 강사와 951명의 국내 영어교사가 참가하여 총 11,250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

성과 역시 좋아 이제는 학생, 학부모, 국내 교사, 미국 현지 대학교 학생 등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표적인 전남 영어교육 지원 사업 중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전남 영어체험캠프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 생 수	11,250	810	1,272	1,560	1,560	2,016	2,016	2,016
원어민 강사	529	45	55	70	75	98	96	90
국내교사	951	96	146	125	125	147	156	156
사 업 비	7,999	700	944	943	938	1,470	1,532	1,472

그러나 전라남도 영어체험캠프가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 공교육지원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숙사, 식당, 강의실을 갖춘 시설과 능력 있는 원어민 강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때문에 도내 대학과 수련원 등의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찾을 수 있었고, 2006년에는 전남과 자매 결연도시인 오리건주를 박준영 지사가 직접 방문해 포틀랜드주립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8년 미주리대학교, 2010년에는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과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공적인 캠프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도 힘을 보태 영어체험캠프를 공동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영어체험캠프 계획 수립, 장소 선정 및 시설점검, 원어민 강사 확보 및 지원, 운영성과 분석 등 총괄기능은 전라남도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제작, 참가학생 선발, 교사 선발, 교사 및 원어민 강사 복무관리 등은 도교육청이 맡아 운영하는 공동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캠프가 끝나고 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참여 전후 영어능력 시험 성적은 평균 7점이 향상되었고, 대다수 학생들이 캠프참가 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참가 수요 역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참가 경쟁률이 6:1로 나타나기도 했다.

영어 공교육 강화로 전남의 미래 밝히기

영어체험캠프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원어민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하는 체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고취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영어체험캠프만으로는 국제화 시대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영어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영어체험캠프 참가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교육협력을 체결한 미국 현지 대학으로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연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67명의 학생이 매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영어에 대한 학습 욕구가 증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등 전남 지역 내 영어 학습 열풍과 학력수준 향상의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영어교육 환경과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어 공교육의 효율적 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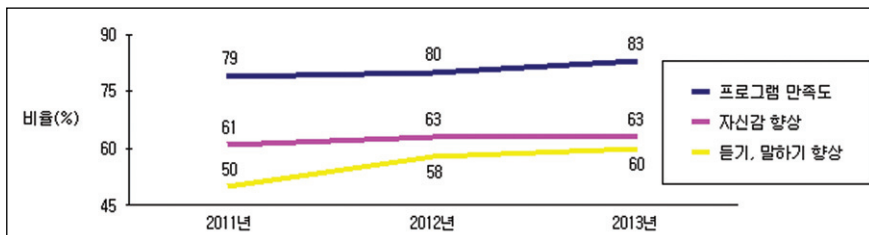


전라남도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주립대 덴 버스타인 총장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2006. 12. 7.)



영어체험캠프에 참여하여 원어민 영어 강사와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

최근 3년간 ('11~'13) 영어캠프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캠프·해외 연수 ... 영어교육 길을 찾다

전남도, 농어촌 초·중생 알찬 지원 ... 22명 미국 보내기로

전남도는 도내 중학생 22명을 올해 겨울 방학 동안 미국 미주리대에 어학 연수를 보내기로 했다. 연수 기간은 4주간이며, 경비는 전액을 도가 부담할 예정이다. 김경호 전남도 교육지원감단은 "연수 대상자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운영한 영어캠프의 참가자 중에서 성적이 좋았던 학생을 고르고, 사·군에서 후원을 받는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뽑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는 자매결연한 미국 대학들의 협조를 받아 영어 원어권 교사를 확보해 농어촌 학교에 배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가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영어캠프 캠프 규모를 늘리는 등 영어 교육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1일까지와 31~14일 전남과학대학·전남도립대학·과립대·해남학생교육원 등 4곳에서 무료 영어캠프를 열었다. 도가 원거인 강사 수급과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캠프 운영을 교육청이 맡았다.

캠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 36명, 모두 127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원어권 강사 55명 및 협력 교사(지

역 학교 영어교사) 146명과 함께 9박 10일 간 숙식을 함께 하며 다양한 생활 체험 위주의 영어 공부를 하고 생활 대화도 영어로 했다. 지난해 여름방학 캠프는 3곳에 차려 810명을 교육시켰다. 올해 캠프 수를 4곳으로 늘리고, 교육 대상 학생 수를 50% 이상 확대했다.

학생은 재정여건이 그나마 나은 5개 시 지역은 배고, 17개 군 지역에서

미 자매대학서 원어권 강사 확보
규모 늘려 4곳서 127명 교육
무료로 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발

참했다. 전남도 행정과와 김영심씨는 "학생들에게는 돈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학생 선발 때 큰 별로 최대 25%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했다"고 말했다.

캠프의 원어권 강사는 교육지원협약을 맺은 미국 포틀랜드주립대와 미주리대를 통해 두 학교 출신 55명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왕복 항공료와 1개월 간 체제 수당(70만원), 기숙사 숙식, 전남 및 전국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저비용의 무료 영어캠프=전남지역은 나무해 일자리가 없는 데다 교육



전남과학대에 마련된 영어캠프에서 원어권 강사들이 한 어중생과 함께 학생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모델 취업을 홍보하고 있다. (프린터서 촬영됨)

환경이 나빠 주민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기는 수백여원, 적게도 수십여원을 들여 영어타운을 만들고 있지만, 전남도와 시·군들은 재정이 빈약해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은영 지사는 "영어 공부해 시켜야겠기에 고민한 끝에 지난해 미국 대학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 최소의 실행비로 단기 강사들을 초청할 수 있

게 됐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우리 영어캠프는 농어촌의 열악한 영어교육 환경을 저비용으로 극복하는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캠프캠프는 장소 또한 방학 기간을 맞아 비어 있는 지역 대학의 강의실·기숙사 등을 빌려 사용, 4곳 캠프 전체 운영비가 9억원이 들었다.
이혜서 기자 ihssa@joongang.co.kr

■ 전남 중학생 22명 美 미주리대 어학연수 가보니...

“여기서는 영어수업이 재미있네요”

“왜 우리나라 영어수업에는 즐거움과 재미가 없을까요?” “새롭고 신선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온 전남지역 중학생들이 남긴 소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1월16일까지 4주간 전남지역 중학생 22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24명을 미국 미주리대에 보내 어학연수를 하도록 지원했다.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의 대상 학생들은 '전남도 여름방학 영어캠프'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선별했다.

학생들은 한 달여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각자 소감을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완도 고삼중 3학년 이현지양은 “한국에서는 나무 지식 위주의 수업을 하지만, 미국에서의 수업방식



지난 겨울방학 중 미국 미주리대학으로 영어연수를 간 전남지역 중학생들이 원어권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게임·길거리 인터뷰 등 현장 학습
“우리도 자율·토론방식으로 바뀌어야”

은 토론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서 “특히 재미있는 게임과 체험학습 위주의 수업 때문인지 더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적었다. 수업은 ▲과학의 세계 ▲미국 주변 이야기 ▲고등학교 영어 ▲자신의 찬란했던 순간들 ▲특종기사 취

재하기 등 매일 주제를 정해놓고 이에 따른 상황 설정을 한 뒤 다섯명씩 분인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일주일에 세 번은 쇼핑물·동물원 관람, 농구경기·영화관람, 레크리에이션 활동, 길거리 인터뷰 등 현장 학습을 거쳤다. 원어권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줬다. 이같은 수업방식은 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나주 금성중 3학년 이휘소군은 “미국에서의 강의는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옛날 이야기나 미식축구 등을 주제로 대화식으로 진행돼 재미를 주었고,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로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고 밝혔다.

구례중 3학년 이주홍군은 “타물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공부 방법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미국식 교육방법이 인상 깊고 부러웠다”면서 “특히 수업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7.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상황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전남을 떠나는 이농현상은 전남의 인구를 크게 감소시켰다. 동시에 학생수가 줄면서 폐교가 속출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교육문제로 다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운명을 바꾸고, 보다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려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재육성장학금을 통한 전남의 미래 밝히기 계획 수립

이 사업은 전남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학사업과 지속적인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 재단을 설립하고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11월 14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그 해 12월 24일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청소년육성기금 235억을 동 재단에 출연해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조직과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재)전남인재육성재단은 출범 다음 해인 2009년 5월 27일 도민과 기업가,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가 주축이 되어 후원회를 구성하고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대한 도민과 향우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관심은 참여로 이어졌다.

도민과 향우, 공무원 등 후원회원의 정기후원금과 기업의 사회 환원 기부금, 서울 향우의 부동산 기부, 사회단체의 자선 행사 이익금, 각종 대회 시상금 등 인재육성의 희망이 담긴 다양한 방법으로 훈훈한 손길이 이어졌다.



(주)부영 장학기금 기탁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주)현대삼호중공업 장학기금 기탁



(주)현대자동차 장학기금 기탁

지역민들의 잇따른 후원과 관심으로 재단설립 4년만인 2012년 목표액인 500억을 초과달성하여 2013년 516억원의 기금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장학재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설립자산	연도별 조성현황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1,600	23,580	28,020	2,329	5,307	5,845	5,894	8,145	500	
출연금	소계	37,957	19,800	18,157	2,304	2,928	4,672	5,456	2,478	319
	도	13,810	7,200	6,610	920	1,000	1,400	1,400	1,890	
	시군	24,147	12,600	11,547	1,384	1,928	3,272	4,056	588	319
후원금	9,857	3,780	6,077	25	2,379	1,173	438	1,881	181	
전남장학회통합	3,786		3,786					3,786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본격적인 장학사업에 착수해 2008년 876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797백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1,627명에게 1,28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장학사업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2004	1,113	872,800	594	452,200	519	420,600	
2005	1,106	879,600	581	444,200	525	435,400	
2006	1,035	828,400	523	408,300	512	420,100	
2007	961	836,000	493	409,200	468	426,800	
2008	876	797,300	416	377,700	460	419,600	
2009	1,092	975,300	523	461,500	569	513,800	
2010	1,163	1,083,000	535	521,000	628	562,000	
2011	1,278	1,181,200	609	550,500	669	630,700	
2012	1,463	1,347,600	656	617,800	807	729,800	
2013	1,627	1,280,345	768	592,925	859	687,420	

지역의 희망 청소년의 경쟁력 제고

재단은 장학금 지급 이외에도 인재육성재단기금을 활용해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지원해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한·중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한 ‘전남-중국 장시성 간 청소년 국제 교류’와 늘어나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지원’, ‘국제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출전 지원’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전국 최초로 전남도 학자금 지원 정책인 저소득 대학생 정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여 2013년까지 20,428명에게 1,377

백만원 지원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정부 학자금 정책 변화를 유도해 냈다.

전남 저소득 대학생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단위: 명, 억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	20,428	1,549	5,259	6,561	4,681	2,378
지원액	1,377	40	334	451	360	192

앞으로도 (재)전남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기금을 바탕으로 지역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장학사업과 창조적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과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 나무은행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푸르른 산천

식목일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립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1949년 제정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녹화사업은 계속 이어져 3차에 이르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산림기본계획(1973~1997년) 등에서 30여년 동안 1백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국토의 65% 이상을 산림으로 채우는 계획이 수립·운영되었다.

덕분에 전국 어느 곳이나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와 숲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저 나무는 나무일 뿐 농업인의 소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다보니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그리 크게 여기지 못했다.

산림 소득화를 위한 나무은행 설치·운영

전라남도는 '전남의 산림을 어떻게 소득화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무은행을 제시하였다. 나무은행이란 개발과정에서 베어질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벌채 전에 수목 분포조사를 실시해 선목, 굴취·이식하고, 나무 수요자 정보를 확보해 이식 적기에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전남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시책을 추진한 이래 2013년까지 5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정부시책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전남의 나무은행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환경부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나무를 재활용하여 국가예산과 산림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이러한 나무은행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될 계획이어서 전남의 앞선 시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나무은행은 무상기증, 각종 개발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확인하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기증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공사업장의 조경목으로 재활용되는데, 산림자원 재활용은 물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5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 나무은행 벤치마킹 활성화

나무은행 시책을 운영하는 동안 2009년 감사원 모범기관 표창, 제4회 경향신문 주관 대한민국 녹색대상 수상, 지역발전위원회(행정안전부) 평가 녹색공간조성분야 S등급 평가,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선정 등 다양한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 충북, 경남, 강원 등 우리나라 자치단체 뿐 아니라, 2010년 10월에는 일본 사가현의 공무원과 조경협회 회원 12명이 순천만 나무은행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등 나무은행을 벤치마킹하는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아울러 공원조성에 사용돼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기증이 늘고 있어 훈훈한 지역분위기 조성과 함께 나무은행 사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시·군별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 신문방송 등에 집중 홍보하여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일보 2012.03.29 장성 '나무은행' 효과 만점

공공 사업장에 1500그루-조경예산 3억5000만원 절감

장성군이 운영하는 '나무은행'이 도시녹지 확충과 조경예산 절감효과를 특목히 거두고 있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바뀌어지는 나무를 줄 보전하기가 있거나, 조경수로 이용가능한 나무를 묘포장에 옮겨 심어 일정한 기간 관리로 수형을 조절한 후 관공용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저탄소 녹색상관과 도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각종 관공용 사업장에 나무 1500그루를 식재해 조경예산 3억5000여 만원을 절감했다. /동부미래본부-김용호기자 yongho@



19. 난대수목원 개발

전국 최초의 난대수목원 조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목원은 익숙하지만 난대수목원은 조금 생소할 수 있다. 그만큼 난대성 식물들이 자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완도 난대수목원은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간직하고 있는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다. 대부분 식물원의 난대림관 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난대 희귀수종을 무려 75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3,857종의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1987년 농림수산부 업무보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릉수목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방에도 수목원을 조성토록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완도 수목원이 발족되었다. 개원 이래 지속적인 기반조성과 확대조성사업으로 현재는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을 이루었다.

해가 갈수록 울창해지는 완도수목원은 전남의 자랑거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에 걸쳐 완도수목원 확대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실로 지금의 아열대온실, 전망대, 산림환경교육관, 특산품판매점 등 8종의 건축시설공사와 더불어 3분야 42종의 시설공사가 이루어졌고 지금의 완도수목원의 기틀이 되었다.

이후 산림박물관을 조성(05~09년)해 난대림 산림자료의 수집과 전시, 그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전통한옥 목구조로 건립된 산림박물관은 외벽엔 100년 가는 전통 옷칠로 은은한 정취를 뽐내어 난대림과 한 풍경처럼 조화로운 모습을 아름답게 구현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숙박시설과 함께 각종 휴양과 치유시설, 체험시설 등 완도수목원이 체류형 산림휴양복합단지로서의 대변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수목원의 백미라 하면 아름다운 수목과 자연이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주제소원과 생태탐방로는 관람객에게 흥미와 볼거리를 더해준다. 이러한 모양을 갖추기까지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특성화된 산림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1ha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감탕나무과원 등 30개 주제소원을 조성하고, 숲길 속 생태탐방로는 치유와 체험의 관람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2010년부터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시작 이래 현재까지 체험 누적인원만 16만명에 이른다. 녹색수업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이며, 유아 숲체험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어 자연스레 심성발달과 정성함양을 불러넣는 성장프로그램이다. 또한 수목원을 탐방하고 나무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수목원 이모저모를 듣는 숲해설은 완도수목원 탐방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누적 참여인원 12만명에 달하는 숲해설은 수목원의 자연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더욱 전문화된 숲해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하고 있다.

산림체험프로그램 연도별 실적 현황

연도별	녹색수업		유아 숲체험		숲해설		계	
	건수	명수	건수	명수	건수	명수	건수	명수
2010	151	9,190	53	1,603	1,263	29,848	1,467	40,641
2011	112	8,272	112	2,152	1,304	39,573	1,528	49,997
2012	75	5,501	110	3,300	1,242	34,338	1,427	43,139
2013	306	8,773	215	3,412	488	13,255	1,009	25,440
계	644	31,736	490	10,467	4,297	117,014	5,431	159,217

회색빛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완도 난대림 수목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 목공예센터 개관 및 목공예 토요경매

가내수공업의 어려움으로 침체된 전남 목공예

조선시대 나주반이라 하면 그 짜임이 견고하고 튼실하며, 부드러운 광택으로 양반은 물론 임금에게도 사랑받는 대표적인 공예품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나주반을 비롯한 전남의 공예산업은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목공예분야 종사자 대부분이 가내수공업의 형태이다 보니 우수공예품의 개발보다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복제품 생산에만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품질개발 능력과 여건, 기술력, 유통·판매시장 등이 타 지역보다 한참 뒤떨어져 결국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때문에 2008년 전남도내 199개 공예업체 중 종사원 1인 이하는 149개 업체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목공예분야는 더욱 심각해 32개 업체 중 종사원 1인 이하가 27개 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 목공예의 규모화·시장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라남도는 도내 목공예업체의 시장성, 기술력, 유통망 확보상태, 지명도 등 모든 조건에서 타 지역보다 열세하고, 현 상태로는 다른 지역을 앞서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목공예업계에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대안으로 대규모 목공예센터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공방은 일시적인 효과는 낼 수 있으나, 기존 업체의 시장 잠식과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생산·교육·유통·판매·전시·체험 등을 종합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남 목공예센터는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2009년부터 시작해 2012년 12월 준공되었다. 전남 목공예센터는 목공예관 전시판매장인 임올대가 1,636㎡으로, 목공예 공예공방 기획전시실인 억불대가 958㎡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임울대에는 국보공예, 목아공예, 정남진편백, 목운전통공예, 송이, 동방 목공예, 청태전영농조합법인 등 7개 업체가, 억불대에는 국보공예, 목운전통공예, 정남진편백, 목아공예, 직영공방 등 5개 업체가 입주해 운영중에 있는데, 방문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시 매장의 매출액 역시 증가추세를 보여 2013년 한해 8억 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3년도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매출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34,280	43,113	49,884	59,198	64,990	90,790	72,803	96,443	120,097	60,955	76,200	56,600	43,207
생산자연협회(1층)	287,708	15,000	15,350	21,240	27,390	34,410	13,250	32,750	42,578	23,290	26,700	20,000	15,750
유정남진편백(1층)	496,025	25,000	30,925	33,900	36,000	53,400	51,100	58,000	68,700	34,700	45,200	33,000	26,100
공예조합(2층)	45,654	3,113	3,609	4,058	1,600	2,980	3,560	5,693	8,819	2,965	4,300	3,600	1,357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쳐 목공예센터 운영 35명, 청년기술 전수 사업 6명, 목공예 전통기술전수 사업 10명, 목공예기능인 지원사업 17명 등 총 6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

나주반의 계보를 잇는 목공예 산업 기반 마련

전시판매장 이외에도 2010년 준공과 함께 전남도 무형문화재 등 7차례의 전시회, 도내 22개 시·군 캐릭터 편백 목공예품 개발 및 제작, 목공예 펜 개발 등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목공예 체험교실(55회, 3,724명), 숲 유치원 운영(11회, 147명), 조형물 및 공예품 제작, 통합의학박람회, 일본 목공예품전, 산림박람회, 산의 날, 각종 판촉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올러 전국 최초로 추진한 목공예 토요경매 행사는 목공예 생활용품 및 작가의 작품 등을 시중가보다 30~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객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89차례가 진행되면서 541점의 다양한 목공예품이 낙찰되어 총 3,397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전남 목공예센터와 목공예 토요경매는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을 통해 매회 새로운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역시 꾸준히 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조선시대 나주반의 계보를 잇는 목공예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농산물의 기업화·규모화는 선택 아닌 필수

농산물의 대량생산은 대량소비와 함께 저장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DDT,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와 산지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 등을 통한 상품화·규격과·등급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규격으로 포장된 상품을 출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농도 전남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단순히 저장과 공급의 의미를 넘어 생존과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의 핵심체

전남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까지 1,670억원을 지원해 저온저장고 164천㎡, 예냉실 2천㎡, 집하·선별·포장장 114천㎡, 일반창고 40천㎡의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양파 238천톤, 배 18천톤, 배추 55천톤, 마늘 37천톤, 감자 3.7천톤, 토마토 8.8천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750억원 규모이다.

최근 10년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지원연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지원연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94	167,020		2009	12	14,107	
2004	2	4,503		2010	12	19,545	
2005	14	15,436		2011	10	20,943	
2006	10	11,627		2012	12	35,036	
2007	7	8,403		2013	5	17,026	
2008	7	7,894		2014	3	12,500	

현재 전남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의 핵심체로서 과실류, 채소류 등 청과물을 대상으로 산지유통의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과 기능 수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의 균일화, 포장규격화, 상품성 제고 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유통정보의 수집과 전파, 공동계산, 브랜드 개발, 계약재배, 자조금 조성, 산지판매, 수출추진 등으로 주요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산지유통센터의 기능강화로 운영 활성화

그러나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품목별로 선별 기나 저온저장고 활용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전남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 출하처를 등급별로 다양화하면서 하품을 가공업체 등에 저가로 판매하는 등 품질 등급별 목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개선 및 농산물에 대한 시장 홍보와 판촉활동 강화를 통해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로 전남 농업과 농민의 힘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22. 다목적 산간저류지 조성

기후변화로 산지재해 피해 발생도 대형화되는 추세

우리나라는 전후 황폐했던 산림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녹화시킨 저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토양은 변화가 많은 대륙성기후와 여름철 폭우로 인해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이 일어나기 쉽고, 최근에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 부족 해결의 열쇠, 사방사업

사방사업이 산림녹화사업의 주역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과거 산속에 시설하였던 사방시설이 산지 재해예방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재해와 안전의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성, 경관성 측면과 산간·도서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 등 생활용수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사방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전라남도도 지속적인 가뭄으로 물 부족현상이 계속되자 그동안 축적된 사방 기술을 바탕으로 산간지역에 지표수를 저장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토록 생활권 주변에 다목적 산간저류지 조성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전남지역에 설치된 다목적 산간저류지는 물가두기형 사방댐이 527개 소로 가장 많고, 저류지 77개소, 대형 사방댐 7개소 등 총 611개소이다.

전남 다목적 산간저류지 조성 현황

구 분	합 계	물가두기형 사방댐	대형사방댐	저류지
수 량 (개소)	611	527	7	77

1석 4조의 효과까지 누리는 산간저류지 사업

산간저류지 조성 대상지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하류에 농경지가 위치한 곳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물매를 줄이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지역, 담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상수가 흐르고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으로 보 설치시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 지역에 한정하였다.

정확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와 연계하여 토석류 피해 우려 지역 등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중 산간저류지 조성 가능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다목적 산간저류지 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계곡 하류지역 마을과 농경지 등지에는 농업·생활용수, 산불진화용수 등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주변에 물놀이장 등 휴양공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는 물방석, 파고라나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휴양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전남은 이들 시설을 활용해 도내 산사태 등 재해예방은 물론 토석류 차단, 물가두기, 주민휴양의 기능 등 1석 4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콘트리트댐



자연석댐



호안블럭댐



흙댐



담수량 확대



물방석 시설



편의시설 설치



물놀이장 활용

전남 다목적 산간저류지 '1석4조'

생활용수·물놀이장 활용·재해예방 등 효과

전남도가 가뭄 등에 대비해 산간 지역 상류에 조성중인 다목적 산간 저류지(물저장소)가 1석4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으로 이용가능하고 재해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올해 150개소의 산간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가 많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 241개소를 조성했다.

지역별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광양에 26개소, 구례에 17

개소, 무안에 16개소, 보성과 담양, 함평에 각 15개소 등이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고흥 영남면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면 마을 상단 계곡부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저류지 조성으로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이 조성돼 마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도 산간저류지 조성사업을 당초 목표치인 150개소에서 250개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

다.

도는 섬지역 생활용수가 부족해 배로 급수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섬 지역 산간저류지 조성 대상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에 다른 지역 보다 우선해 산간 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간 저류지 조성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주민 안전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만큼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16.3 X 11.4 cm

전남 사방댐, 물놀이장 ‘대변신’

道, 산불 진화·농업용수 등 다목적...올해 391억 투입

전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방댐 및 계류 보전사업이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숲속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청정수를 활용한 천연 물놀이장으로 활용돼 여름철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에 시공한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사방댐에는 해마다 가족단위 휴양객 3천여명이 찾아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위안리 사방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구형근씨는 “사방댐이 유명 유원지 못지 않은 서민들의 피서지로 인기를 끌면서 여름 한 철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수혜자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나주 금성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하단부에 사방댐을 막고 3단 저류지를 만들어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사진)도 입소문을 통해 피서객들이 몰려 지난해 1만6천여명이 다녀갔다.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송흥군 나주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담당은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료로 금성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청정수를 물놀이장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사방댐에



도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2~3단 물놀이장이 갖춰져 있어 한여름철 수백 명의 피서객이 찾는다. 이곳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종근씨는 “한참 더울 때 가족단위로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야외 물놀이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암 회문리 기찬랜드에도 계곡 상단부에 월출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해 길이 41m, 높이 9m (담수용량 2만톤)의 대형 사방댐을 막고 하단부에는 계류보전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연간 14만명의 물놀이객이 찾은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어 금정면 연소리 뱅뱅이골 상단부에 제2의 기찬랜드라 할 수 있는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방사업이 재해 예방과

물놀이장 활용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도 391억원을 투입,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 진화용수 및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한 다목적 사방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사방사업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산지 상류에서 밀려내려오는 토석과 나무 등을 차단해 하류지역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곡 등에 설치하는 것이다.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줄이고 침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오치남 기자 ocn@namdnews.com

17.1 X 20.0 cm

23. 비교우위 특산자원 산업화

비교우위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은 풍부한 일조량, 따뜻한 기온, 맑은 물과 공기는 물론, 청정지역을 꼽았다. 그리고 우수한 환경에서 생산한 생물자원과 친환경 농산물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는 비교우위 특산자원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산자원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 설립한 장흥에 소재한 ‘천연자원연구원’에서 도내 생물기업의 맞춤형 수요조사를 거쳐 122종의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선정하고, DB 구축과 함께 각 자원별 성분 분석 및 기능성 구명, 비임상시험, 인체시험, 인증등록, 산업화 등 단계별로 도내 기업과 연계한 생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에 단 4대 뿐인 초고속생리활성 검색시스템 HTS(high throughput screening system)를 비롯한 각종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장비와 전임상 동물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남 특산자원의 신규 기능성을 발굴하고, 핵자기공명장비인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과 각종 성분 분석 장비 기술을 이용하여 발굴된 기능성 물질 연구를 추진하였다.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현재까지 천연물 의약품 후보자원으로 멀꿀, 돼지감자, 편백, 황칠, 해삼, 해당화, 석류 등 7개 자원과 건강기능식품 후보자원으로 울금, 매실, 비파, 황칠, 헛개, 차즈기, 양파, 해당화, 석류, 비타민 나무, 유자, 해삼, 멀꿀열매, 대나무 등 14개 자원을 우선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식재산권(특허) 56건 출원 중 15건을 등록했으며, 임상시험 추진상황으로는 임상완료가 매실(변비), 비파(기억력) 등 2건, 임상진행중인 것이 황칠(남성 갱년기), 헛개나무가지(장기능) 등 2건, 임상준비 완료로 황칠(장기능), 비타민나무(남성갱년기) 등 2건이 있다.

또한 전남의 대표적인 자원인 진도 울금을 이용하여 알콜성 간 손상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소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2013.3)을

획득하였고, 멸꼴이나 황칠, 편백 등에서 추출한 기능성 물질에 대한 특허출원 및 제품화를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8건 10억여원)을 완료했다.

특히, 2013년 7월 1일에 영진약품공업(주)와 도내 자생식물인 멸꼴을 활용한 ‘천연물신약 관절염 치료후보 물질개발’ 기술이전 협약 체결은 도내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손꼽을 수 있다. 협약체결로 수억원대의 기술이전료를 비롯, 향후 신약 매출액의 4%, 제3자 이전시 이전금액의 25%를 받게 된다. 영진약품이 글로벌 천연물신약(국내 천연물시장 규모 4,500억원, 세계 천연물 시장규모 440억달러)으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도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멸꼴을 활용한 관절염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협약식(2013. 7. 1.)

현재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 사업은 1단계 사업(2010~2013, 30억원)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단계 사업(2014~2016, 30억원)을 적극 추진중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성과 활용 및 지속 수행과 동시에 미개척 생물자원(토종/난대성/독성 자원, 해조류, 버섯류 등) 540종에 대한 D/B 구축과 기능성 규명 등을 통하여 전남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능성특산자원 산업화 절차(연구개발→ 제품화)

천연물 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아울러 그동안 해외에만 의존해 생산하던 해외 진출용 천연물 신약의 소규모 임상·비임상 시험용 원료의 국내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내에 국비, 지방비 30억원 규모의 cGMP급 천연물 의약품 임상·비임상 위탁생산(CMO)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천연물 의약품의 세계 시장규모가 440억 달러에 연평균 20%까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천연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천연물 의약품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약 650여종의 천연물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생산기준(cGMP급)에 맞는 CMO기관에서 시험원료를 위탁생산 해야 될 상황이다.

전임상·임상시험 위탁생산(CMO)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남도내에 생물산업진흥원 산하 7개 연구원과 KTR 헬스케어연구소(전임상, 안전성 시험·인증), 화순 전남대병원(임상), 이와 별도로 화순 의약품산업단지 내에 전국 최초로 2017년에 완공하게 될 비동물(세포, 계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전임상시험 연구소와 산업화 단계별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로써 전임상시험에서 제품생산까지 특산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의약품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고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 해안가 지역 조생종 벼 확대 재배

지구온난화로 농업분야 피해 확대

지구에서의 기후변화는 약 45억년전 태양에서 지구가 분리되어진 이래로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의 진화 역시 계속되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가속화된 산업발달과 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로 지구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를 맞게 되었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전에 없던 강력한 슈퍼태풍, 쓰나미, 홍수, 폭염, 지진 등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기상이변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현상은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은 0.7℃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1.5℃가 상승되어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보다 2배나 높게 상승되었다. 또한 ‘국가태풍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1904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수는 335개로 연 평균 3.1개가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으며,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강력한 태풍은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큰 피해를 입히지만, 특히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조생종 품종 연구 개발 역점 추진

농도 전남의 경우, 벼농사에 있어서는 후기 등숙기의 잦은 태풍에 의한 벼 쓰러짐, 이삭마름(백수) 등의 재해피해와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다보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전라남도는 육지부 최남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활용해 타 지역보다 모내기를 빨리해 벼를 빨리 수확한다면 후기 태풍 등 재해피해와 돌발병해충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후작으로 녹비작물, 사료작물 뿐만 아니라 택사, 시금치 등 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어 경지이용률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기후 조건을 활용해 다른 지역보다 모내기를 빨리하기 위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생종 벼 조기재배의 확대와 우리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품종을 연구 개발하게 하였다.

2008년부터는 모내기 시기를 앞당겨 태풍 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한편, 다른 지역보다 먼저 햅쌀을 생산하여 전국 햅쌀시장을 선점하고 고품질 전남쌀의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조생종벼 조기재배 확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라남도는 지리적 여건 상 벼 등숙기인 9월에 태풍이 잦아 벼 쓰러짐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오히려 고품질 쌀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로 농가소득도 감소된다는 점 등을 정부와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벼 조기재배를 위한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아울러 자체 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전라남도에 알맞은 조생종 품종을 육성하도록 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매년 4월 초 해안지역을 순회(강진, 해남, 장흥)하며 매회 농업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가 직접 이앙기에 탑승 모내기하는 연시회를 개최하였으며, TV, 라디오, 신문, 홍보 등 전방위적으로 성공추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소득증대

그 결과, 조생종 벼 조기재배는 2008년 11,993ha(논벼 재배면적 대 6.5%)를 시작으로 2009년 14,056ha(7.7%), 2010년 18,515ha(10.3%), 2011년 19,232ha(11.1%), 2012년 19,638ha(11.4%), 2013년 21,292ha(12.5%)까지 확대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조기재배를 통해 생산된 햅쌀 양은 총 458천톤('08) 54천톤, ('09) 57, ('10) 83, ('11) 81, ('12) 85, ('13) 98)이며, 농업인과 쌀 가공업체에서 얻게 된 추가 수입액은 기존 중 만생종벼 재배 대비 2,520억원('08) 353억원, ('09) 88, ('10) 219, ('11) 757, ('12) 345, ('13) 758)에 달한다.

조생종 벼 재배로 인한 직접적인 소득 증대 뿐 아니라, 조기 재배한 논에 후작물로 청보리와 같은 사료작물은 물론 택사, 시금치, 미나리와 같은 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작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경지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벼 쓰러짐 등 태풍 피해와 병해충 피해 경감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2012년에는 8월 하순부터 연이은 태풍(제15호“볼라벤”(8.28일), 제14호“텐빈”(8.30일), 제16호“산바”(9.17일))으로 중만생종벼의 이삭마름 피해(전체 재배면적의 34%)가 극심하였으나, 조기재배 한 벼는 태풍 전에 수확이 이루어져 재해경감대책 우수사례로도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13년에는 벼농사 후기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벼멸구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조기 재배한 벼는 피해 확산 전에 수확하여 피해를 크게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속적인 품종 육성·보급으로 전남쌀 이름 알리기

또한 벼 조기재배의 안정적 기반구축으로 타 지역보다 재배 우위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조기재배 시작 당시 재배기술 및 농업인의 실천의지가 미약하였는데 전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자가 협심하여 매뉴얼 연구개발과 우리도에 적합한 품종육성에 박차를 기한 결과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현재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보급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은 우리 도에서 육성한다는 신념하에 ‘전남1호’라는 조생종 품종을 육성·보급하게 되었고, 이어 ‘전남2호’, ‘전남3호’ 등 새로운 품종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농업인의 인식 변화이다. 사업 초기 조기재배에 대해 의구심과 두려움을 갖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더불어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 실천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증대의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자발적으로 추수시기, 기상전망 등을 분석하고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전남의 조생종 벼 조기재배는 더욱 확대되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품질 좋은 전남쌀이 전국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7대 분야별 역점추진 시책
제3절 3농정책과 친환경농업



햅쌀 시장 선점을 위한 벼 조기재배 단지 햅쌀

본 단지는 고물길 조성용 벼 조기재배로 전국 햅쌀시장 선점과 지구온난화에 따라 태풍 및 병해충 피해 강감을 위한 1도작 모내기 일당갯길 보급을 위해 조성된 단지입니다.

강진군 조기재배 시범단지 현황

구분	계	제1단지	제2단지	제3단지	제4단지
면적	4천여	110	50	20	20

재배기술 현황

- ▶ 품종: 문광벼 ▶ 모내기: 4월10일~4월20일 ▶ 수확기: 8월29일~9월1일
- ▶ 시비: 1당: 50g-3N-2P-K
- ▶ 벼재배 관리
 - 이앙시(살제초제): 1당도엽엽 + 벼물어구이 + 세갈구
 - 본논잡제(7월중순~7월하순): 이작도엽엽 + 1당도엽엽 + 벼물어구이 + 세갈구 + 죽도
- ▶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담당: 장민영(430-3900)) ▶ 기술: 벼재배, 도립농업기술센터

도암농업협동조합 강진군농업기술센터



光州日報 2011년 02월 11일 (금) 10면 지역

태풍·벼멸구 피해 예방하고 햅쌀시장 선점

전남 벼 조기재배 확대

전세면적 10% 4월 모내기 8월 수확-전란 계약재배

전남도는 올해 전체 재배면적의 10%인 1만9000여ha에 조성된 품종별 조기 재배에 잘 부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벼멸구 피해를 예방하고 햅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성용 벼 조기재배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벼물어구이 싹틔우 수, 고온, 장충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10개소 200ha가 조성되어 RCD(미국 종합제리당)과 전란 계약재배에 르랜드와도 계약했다.

을 생산하기 위해 밭만 좋은 논과도 보급한다. 일부 지역은 조성용 품종과 품종 특성을 고려한 품종에 생산에 대응하는 품종에 맞춰 시장 선점에 나선 계획이다.

4월 중-하순에 모내기할 때 수확단인 것을 막아내려 수확하는 조기재배는 소비자가 원하는 맛 좋은 햅쌀 공급으로 전남 쌀의 지속적인 판매량 구축과 함께 쌀의 수입과 이윤도 확보할 수 있다. 작물 재배로 농민이 이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000ha에서 30210ha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진에 생명농업기술과정을 "올해 추석이 8월12일로 어느 해보다 빨라짐"을 중-하순에 조성용 품종을 모내기해야 추석 전에 햅쌀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은근은 품종도 지금부터 확보해 고물길 햅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원군 기술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